

H EBS 취약선지 모음



EBS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유교 삶과 죽음의 의미

- 인간의 생사는 명 아난게 있으나, 그 정상적인것을 따라야 한다. 때문에 명을 아는 사람은 험준한 담장아래 서지 않는다.
-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죽는것은 제 수명에 죽는 것이지만 형벌을 받아 죽는것은 그렇지 않다.

플라톤 삶과 죽음의 의미

-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 우리는 죽었을때 비로소 간절히 바라는 세계를 얻을 수 있다.

에피쿠로스 삶과 죽음의 의미

-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이데거 삶과 죽음의 의미

-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니추어 나뉘어 단

-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그 활동에서 순수하게 이타적일 수 없다.
- 인간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이 비 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성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킨다.

망자 분배 정의

- 위아래가 다되어 자신의 역할을 취하려고 하면 나라는 우더균위치므로 왕은 이익보다 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분배 정의

- 분배에서 정의로운것은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건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모든사람이 동일한것을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밝은 현세같은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사람은 부정의를 당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당한 경우에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여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 분배정의는 기하학적 비례로 균등한 사람들이 균등한 사물을 가질때 형성된다.
-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뜻을 차지하게 되면 분쟁과 부정의가 생겨난다.
-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뉘고, 특수적 정의는 시장적, 분배적, 교환적 정의들이 있으며 이는 올바른을 지향한다

플라톤 분배 정의

-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 전체에서 약은 공식되지 않을것이다.

롤스 분배 정의

-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공평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유린되어서는 안된다.
- 분배적 정의 / 원초적 입장 = 사회적계약론 / 자연상태

순수 절차적 정의: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 X	공정한 절차 O	→ 절차만 따르면 결과도 공정
완전 절차적 정의:	"	O, " O	but, 드물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	"	O, " X	

노직 분배 정의

- 분배정의의 전형적 원리들은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으로 한다. (재분배는 매우 심각한 문제)
- 최소국가는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최대의 포괄적인 국가로 남는다.

왈처 분배 정의

-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다른 주체, 기준, 절차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에서 가치가 생김 → 사회마다 다른 의미)

칸트 형벌론

- 사형은 범죄자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속행위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준다.
- 형벌의 발착은 정연명령이다. 살인자는누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되며, 살인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기에 범죄와 복의 동등성은 없다.

베카리아 형벌론

-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하는것 역시 불가능 하다.
-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 노역형은 수형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

비담 형벌론

- 모든 처벌은 약이다.
- 형벌은 그 자체로 약이다. 범죄자가 사회전체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는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

루소 형벌론

-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것이 동의하는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작히 위해서이다.
- 범죄자가 사형을 당할때 그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다.
- 살인범은 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심어 해박원조

- **심어 룰스에 대한 의견** : 룰스는 "면약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추고 지배된다면, 자원이 너무 희소해서 질서정연할 수 없는 사회는 (한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거역 없다" 라고 추측 하는데, 이 추측은 옳은수도 있고 그르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현재 없는 나라에 사는, 기아나 영양실조 또는 지금 당장 쉽게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개인들의 권리를 방치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권리를 방치하기 때문이다.

- 다른 조건이 모두 다 같다면, 국가가 자국민을 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머지 어떤 한 나라에서 부유한 한 쌍이 극장에 가서 쓰는 돈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쌍들이 한 해 동안 먹고 사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사정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효용을 얻는 효율적 배분을 가지고 추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해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개념, 오히려 효용의 크기도 불평등 때 우리가 해외에 배울 수 있는 선형의 양이 자국민을 돌볼 의무를 훨씬 압도한다고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룰스 해박원조

-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하는데 손쉬운 방법은 없다. 그것에 자금을 투자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강제력의 사용은 만민법 의해 배제된다.
-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추고 통치된다면,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추측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국채 권력, 시민 불복종

-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원형이므로 모든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면에서 국가 성립이전의 단계인 여러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성격을 갖는다. 국가는 이런 여러 공동체의 종착역이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
-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지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다.

홉스 국채 권력, 시민 불복종

-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전보장과 생명보존에 있다. 따라서 설령 한 인간이 말 또는 기타 표식에 의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더라도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지나 의도였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연적으로 결합되며, 이를 통해 '자상익신'이 탄생한다.

로크 국채 권력, 시민 불복종

-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 인간은 자연상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사회를 만들게 된다.
- 국가의 권력, 또는 입법부권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 자연상태에는 안정된 법률, 도움을 해결할 재판관등이 없으므로 자연상태의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들어가려고 서두른다.

루소 국채 권력, 시민 불복종

- 사회계약을 하는 순간 각 계약자의 '사적인 인격'은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의 도덕적이고도 집합적인 단체' 곧 '공적 인격'이 형성된다.

맹자 국역 권위, 시언 불복종

- 인을 해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악을 해치는 사람을 잔인하게 굳은 사람이라고 한다.
- 민생과 장례는 바로 왕도적 첫 출발이다.
-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벼운 것이다.

목자 국역 권위, 시언 불복종

- 하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자는 차별없이 사랑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윗사람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한비자 국역 권위, 시언 불복종

-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가려 위해 필요한 것은 두가지 권병 뿐이다.
두가지 권병이란 형과 덕이다. 벌을 내리죽이는 것이 형이고, 칭찬하여 상을 주는 것이 덕이다.

소로 국역 권위, 시언 불복종

-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하며,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선들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 삶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 국민이 되어야 한다. 밝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롤스 국역 권위, 시언 불복종

- 공적인 정역권의 개념 확장이 계속해서 고역적으로 침해될 경우, 특히 기본적인 평등 자유의 권리가 있을 경우 복종이나 저항이나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 시언 불복종은 양심에 근거하는 하지만 나의 정복함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 등 특정한 도덕관에 근거한 행위와는 다르다.
- 시언 불복종 행위는 항의의 대상이 되겠다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려고 요구하지 않는다.

싱어 국역 권위, 시언 불복종

-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 단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간단한 규칙은 없다.
다만 시언 불복종이 사회 전체에 가져올 손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시언 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좌절시킨다고 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코헨 자연과 윤리

- 인종차별주의는 안의 양종 집단 사이에 어떤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게 사색한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종들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아퀴나스 자연과 윤리

-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당연하게 인간에 의해 이용되도록 강해져 있다.

싱어 자연과 윤리

- 다른 종 구성원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비교하거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확성'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물은 커다란 영향을 받지만 인간의 악이 크게 손실되는 일이 아닐 경우에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유정성이 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레건 자연과 윤리

- 도덕적 무능력자는 자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과 자기 행위에 대한 통제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적절한 도덕원리를 심사숙고하여 적용하고, 수행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 임으로 단순히 자원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테일러 자연과 윤리

- 생명체가 '목적적 삶'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기체적 존재 직육과 종족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인 생물학적 작용의 성공적 수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 지향적이라는 의미이다.

레오폴드 자연과 윤리

-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량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 대지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도양, 식물,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네스 (심층생태주의) 자연과 윤리

- 한정된 자원의 자원조건 아래에서의 공생은 '큰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극대화 한다.

㉠ EBS "

유교 자연과 윤리

-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며 땅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작은 존재들도 이들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를 발견한다.
-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이고, 나의 스승이다.

불교 자연과 윤리

-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를,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물을 먹는 것이다.
- 강한 자면 약한 자면 살아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 생명이 있는 것은 연기에 의해 있는 것이니 폭력을 쓰지 말라.

